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권세안 김기수 김우근 김진희 맹지혜 방원식 배경철 백성원 유은자 유현호 윤순한 윤정호
이육남 장복순 전병구 채만기 채희춘 천세력 최기훈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권세안 맹지혜 방원식 배경철 서재희 안지영 유은자 윤순한 이미지 이윤옥 이인숙 조옥자 지옥분 최기훈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경엽 김규찬 김병을 김숙자 김정연B 김중익 김현구 민옥희 박부웅 박순자 박춘자
방복순 백경자 양영옥 영영분 이미지 이윤자 장성자 전병구 채영엽 최선미 하세련 허봉선

☞ **일천번재헌금**
이진우 김민혁 김영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이
이설아 이소은 이육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전지선 정승현 정옥순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26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예레미야 22장 20절 ~ 30절				
월요일	예레미야 23장	1절 ~ 8절	목요일	예레미야 23장	33절 ~ 40절
화요일	예레미야 23장	9절 ~ 22절	금요일	예레미야 24장	1절 ~ 10절
수요일	예레미야 23장	23절 ~ 32절	토요일	예레미야 25장	1절 ~ 14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춘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준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승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 나 : 김한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바눗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화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슬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국 : 최윤희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6 23. 주일 예배 설교
무지와 불신을 뛰어 넘으라

마가복음 8장 1~13 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나 복음에 적대적인 환경 등이 그런 요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잘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 제자들의 무지
 - 오병이어와 유사한 기적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 사건 역시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흘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먼 길을 떠온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오천 명이나 먹고 열두 바구니나 남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법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도 한데, 제자들의 지식과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정말로 여전히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믿음,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 그렇게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먹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나 지식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사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일곱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 제자들의 무지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참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배워야 있는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이 삶 속에 체험될 때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며,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생활에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바리새인들의 불신
 - 본문 11~13절의 말씀 속에서는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힐난과 시험뿐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힐난이 되어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본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을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루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어떤 표적도 주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표적을 봐도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신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지만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지난 날 나에게 행하신 일들로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혹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지식과 말씀을 듣는 것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올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무지와 불신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SINCE 1975

No. 45 - 26

2019. 06.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부] 오전 7시	사회: 배 경 철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다 갈 이
찬 양	찬송가 304(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Praise)	다 갈 이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유 현 호 집 사
(Prayer)	[3부] 배 경 철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8장 14~26절[신약p.67]
(Scripture)	강 은 미 권 사
	[2부] 신명기 6장 1~3절[구약p.270]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Anthem)	다 갈 이
	[3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네 [전선매]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Sermon)	이 진 우 목 사
	[2부] 안전벨트
	김 제 호 목 사

초청자 환영

헌 금 봉 헌	[1,2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3부] 시편 23편 [최택신 [윤영준 외]	성 현 중 창 단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갈 이
(Praise)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배

오후 3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목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26편 12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14(통511)장 다 갈 이
기 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유 현 호 집 사
성 경 봉 독	아모스 3장 1~15절[구약 p.1277]
사 회 자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거룩한 사명의 사람 이 진 우 목 사
광 고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찬송가 325(통359)장 다 갈 이
축 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박복순권사]
곽 정 순 권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장 8~9절[신약p.187]
인 도 자	
설 교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 광고
-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환영 만찬과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교회 성도들은 로템나무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총회주일헌금 결과]

127명의 세례교인이 1,253,000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7/5) 금요기도회는 “청년부” 주관으로 합니다.
- [다니엘 기도회]

7월 1일(월)~21일(주일)까지 3/4분기 다니엘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맥추감사주일]

다음 주일(7/7)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영아유치부	7월 26일(금)~27일(토)	교회 제1교육관	여호와만 찬 하나님
유초등부	7월 26일(금)~27일(토)	교회 유초등부실	우리 함께 세워요!
중고등부	7월 29일(월)~31일(수)	살렘전원교회(김포)	Let's Build up
청년부	8월 8일(목)~10일(토)	저녁노을하우스(영종도)	BUILD UP
- [교사강습회]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강습회가 7월 7, 14,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진행됩니다. 각 주일학교 교사 및 봉사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역자휴가]

▶ 김제호 목사 : 7월 2일(화)~5일(금) ▶ 이필레 전도사 : 8월 27일(화)~30일(금)
영육간에 쉼이 있어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7월 행사 안내]

7월 7일(주일) 맥추감사주일
7월 7, 14, 21일(주일) 교사강습회
7월 26일(금)~27일(토) 영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28일(주일) 에스더 여전도회 헌신예배
7월 29일(월)~31일(수)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김포)

- ◎ 모임
- | 이 번 주 | 다 음 주 |
|-------|--------|
| | *교사강습회 |

- ◎ 환영합니다
- 19-9 김현수 성도(사랑2 개봉2, 바울남전도회) 신순덕 성도 인도
- ◎ 교우소식
- 故 차옥순 성도 26일 소천 28일 장례
- ◎ 교회를 섬기는 분
- | | 성 단 | 차 | 종 식 | 오전식사 | 주방봉사 | 교회청소 |
|-----|---------|---------|---------------|--------|--------------|----------|
| 이번주 | 오서윤 어린이 | 오채윤 어린이 | 강영성 장로 신화순 권사 | 김병을 장로 | 소망1 고척 1,2,3 | 드보라 여전도회 |
| 다음주 | 이창현 학생 | 이수현 학생 | 여운희 권사 | 최기훈 장로 | 소망2 고척 4,5,6 | 에스더 여전도회 |

7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27주(7일)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민옥희 권사	윤조훈 장로	김종진 집사	박복순 권사				
	28주(14일)	김형국 집사	김병을 장로	이옥남 권사	강영성 장로	김형국 집사	배숙자 권사				
	29주(21일)	김종진 집사	임만순 장로	김명숙 권사	김병을 장로	방원식 집사	최귀남 권사				
	30주(28일)	방원식 집사	박관제 장로	이인숙 권사	최기훈 장로	송명숙 권사	서재희 권사				
	예배안내	박관제 최성현 윤영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